

## 전남 동부권

## 여수시립현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말썽

## 부품생산 중단도 모른채 추진

업체 “보류”에 市·조달청 “외국부품 사서라도 시공하라”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지 방조달청이 관급공사 계약 차질에 대한 책임을 놓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자체와 조달청은 “행정기관의 책임을 일부 감안해 입찰을 취소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에 향후 입찰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경고 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

월 24일 ‘여수시립현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내자)’ 입찰을 광주지 방조달청에 의뢰, 실시했다.

입찰에는 총 4곳의 설비·시공업체 가 참여했으며 1억8000만원을 제시 한 S업체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여수시와 광주조달청이 제시한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들어가는 실외기 등 주요 부품은 지난 4월 이후

국내 생산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S업체 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광주조달청 실무 공무원들 역시 미처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사는 국내에서는 부품을 구 할 수 없는 데다가 외국에서 제조되는 부품은 가격이 50% 가량 높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여수시와 광주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계약 보류 또는 입찰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수시와 광주조달청은 ‘외

국에서 만든 부품을 들여서라도 시공을 하라’며 계약 보류 등에 대한 거부 입장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해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계약 차질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수시와 조달청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조달청 관계자는 “부품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조달청이 아닌 업체의 몫”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뛰어든 업체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 보류나 입찰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구례 클로버형 입체교차로 내달 완공  
하늘에서 바라본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국도 19호선 클로버형 입체교차로. 냉천교차로는 총사업비 73여억원을 투입, 오는 8월 원공될 예정이다.  
(구례군 제공)

## 여수백병원 주민곁으로

## 어깨통증 무료 건강강좌

어깨통증 전문 치료병원인 여수백병원(원장 백창희)이 지난 29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의료진과 ‘입원환자, 환자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고객과 함께하는 여수백병원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어깨통증 수술없이 치료한다’-초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어깨치료 방법’을 발표한 영상의학과 이승훈과 잠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은 정확한 병명이 아닌 여러 증상들에 대한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따르면 오십견의 특성은 통증과 운동제한이며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예 질환은 다양하다.

이러한 어깨질환을 의미하는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치료의 한 방법으로 백병원은 ‘수압 팽창술’을 사용하고 있다. ‘수압 팽창술’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으로 증세가 호전되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가 어렵게 된다.

이럴 때 초음파 유도로 국소마취제와 염증완화제,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액을 어깨관절낭 속에 주입함으로써 유착조직들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 새로운 유착조직이 생기는 것을 막아 치료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 30일 회천면 야구장 입구 도로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교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총 연장 2.2km인 명교 도로는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2년 3개월동안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그동안 비좁고 낡아 사고위험까지 있던 도로를

왕복 2차로로 말끔히 재정비했다.

명교도로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회천면 유품·동물리 등 해안 거점 관광지로 있는 중심 도로이자 장흥 수문

에서 유품, 보성차밭을 있는 관광도

로 활용된다.

도로 인근에는 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됐고 유품 솔밭해변과 명교해변

의 소나무 숲, 국제공인 규격의 회천

야구장 등 볼거리 관광지들이 산재해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

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유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유품·동

율항 확충, 명교리 전일리 연안정비

사업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품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주~보성간 4

차선 확장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명

교도로와도 이어져 많은 관광객이 보

성을 찾고 있다”며 “보성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보성~장흥 있는 해안 관광도로 개통

## 55억 투입 2.2km ‘명교도로’ 확포장 준공

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유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유품·동

율항 확충, 명교리 전일리 연안정비

사업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품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주~보성간 4

차선 확장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명

교도로와도 이어져 많은 관광객이 보

성을 찾고 있다”며 “보성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보성군 유품 해수욕장 인근 해안도

로와 녹차밭, 장흥 수문을 잇는 해안

관광 도로인 ‘명교도로’가 개통됐다.

보성군은 지난 30일 회천면 야구장

입구 도로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명교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총 연장 2.2km인 명교 도로는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2년 3개월동안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그동안 비좁고

낡아 사고위험까지 있던 도로를

왕복 2차로로 말끔히 재정비했다.

명교도로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회

천면 유품·동물리 등 해안 거점 관광

지로 있는 중심 도로이자 장흥 수문

에서 유품, 보성차밭을 있는 관광도

로 활용된다.

도로 인근에는 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됐고 유품 솔밭해변과 명교해변

의 소나무 숲, 국제공인 규격의 회천

야구장 등 볼거리 관광지들이 산재해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

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유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유품·동

율항 확충, 명교리 전일리 연안정비

사업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품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주~보성간 4

차선 확장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명

교도로와도 이어져 많은 관광객이 보

성을 찾고 있다”며 “보성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보성군은 지난 30일 회천면 야구장

입구 도로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명교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총 연장 2.2km인 명교 도로는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2년 3개월동안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그동안 비좁고

낡아 사고위험까지 있던 도로를

왕복 2차로로 말끔히 재정비했다.

명교도로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회

천면 유품·동물리 등 해안 거점 관광

지로 있는 중심 도로이자 장흥 수문

에서 유품, 보성차밭을 있는 관광도

로 활용된다.

도로 인근에는 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됐고 유품 솔밭해변과 명교해변

의 소나무 숲, 국제공인 규격의 회천

야구장 등 볼거리 관광지들이 산재해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

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유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유품·동

율항 확충, 명교리 전일리 연안정비

사업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품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주~보성간 4

차선 확장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명

교도로와도 이어져 많은 관광객이 보

성을 찾고 있다”며 “보성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민선 5기 1년

이성웅 광양시장

## “동북아 명품 무역도시 만들것”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 창출과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우뚝 세워나가겠습니다.”

3선의 이성웅 광양시장은 민선 5기 시장 1년의 성과로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포스코 후판공장 준공과 합성연료 가스(SNG)공장 착공, 컨부두 처리 물동량 200만TEU 달성을, 광양~일본간 카페리 운항 등을 꼽았다.

또한 시립 국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을 청단하고 광양 역사문화관을 개관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자금을 높여줬다.

특히 광양시 천연 음악 분수대의 준공으로 동부권 주민들까지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시장은 6대 시책 사업으로 ▲ 광양 르네상스 운동 전개 ▲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건설

▲